



나무로 만든 가방

의외의 것에서 나무를 발견하다.

글 전미희 기자 | 자료제공 Haydanhuya, Walnut Studiolo

소재가 지닌 단단한 물성 때문에 나무는 형태가 갖춰져 있고 내구성이 중요한 가구나 건축, 식기류 등에 주로 쓰였다. 하지만 때로 의외의 것에서 나무의 쓰임새를 발견하기도 한다. 가방, 자전거, 자동차 등 나무가 가진 소재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나무의 재발견, Haydanhuya

사진 Haydanhuya



오크, 월넛과 같은 하드우드로 가방과 지갑을 만든다면 어떨까. 딱딱하거나 무겁진 않을까, 생활에 불편하진 않을까. 보기만 해도 착용감이 궁금한 오크 가방은 터키의 디자이너 고칸 에르야만(Gokhan Eryaman)의 작품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무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을 작업에 담았다.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그가 하드우드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나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가방과 지갑 등에서 소재의 필요성을 찾았고 이를 적용했다.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라는 인식 대신 잘 잡혀진 형태, 가죽이나 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감촉과 결이라는 나무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활 곳곳에서 소재의 새로운 쓰임새를 발굴한 작가는, 나무에게 부족한 유연함이나 부드러운 것은 가죽 혹은 다른 소재를 혼합해 보완한다. 하지만 가방이나 지갑에서 가장 핵심인 수납공간은 반드시 나무를 사용한다. 수공구를 이용해 나무 안쪽을 깎아내어 수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가방은 보기와 달리 무겁지 않고, 적당히 라운드를 주어 형태를 잡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도 덜하다. 나사를 일절 쓰지 않고 만들어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작가는 앞으로도 수작업으로 계속 작업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손으로 만들 때 느끼는 행복이 누군가의 쓰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일상으로부터의 출발, Walnut Studiolo

사진 Erin Berzel



제오프 프랭클린(Geoff Franklin)이 만든 월넛 스튜디오는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탄생했다. 자전거 자물쇠를 자주 잃어버리는 탓에 이를 보관하기 위한 가죽 가방을 만들게 됐고, 스스로를 만족시킨 작품이 곧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자 지금의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엔 혼자 쓰는 물건이기에 다른 이들의 가방이나 옛 자료들에서 디자인을 참고했지만, 자신이 만든 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자 그는 나만의 개성이 담긴 제품, 월넛 스튜디오로만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가가 스스로 내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공방이 있는 미국 포틀랜드 지역의 수공구를 사용할 것, 지역을 기반으로 작업해 나갈 것, 내구성 있는 자연 소재로 만들 것, 자연친화적인 제작방법과 재료를 쓸 것. 그리고 이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그가 택한 소재가 바로 가죽과 나무였다. 가방의 소재는 주로 가죽을 사용하지만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내부를 위해 옆 면에는 나무를 적용했다. 대신 가볍고 향이 좋은 삼나무를 선택해 나무의 무게감을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월넛 스튜디오에서는 각각의 소품이 쓰이는 방식에 따라 소재를 달리한다. 여행용 도미노나 게임 카드 등은 작고 얇기 때문에 자작나무를 사용하고, 병을 담는 트레이는 액체와 병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파이버보드의 일종인 메이소나이트나 대나무 합판을 쓴다. 작가는 자기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유니크하면서도 내구성 있고 기능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